

# “전북발전 위해 힘 실어줘야”

민주 김윤덕 의원, 전주 거리에서 시민들에 지지 호소  
“하나 된 마음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면 승리”



전주시 평화동 꽃밭정에서 이재명 지지 유세를 하고 있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전주시 갑) 국회의원은 24일 전주시 평화동 꽃밭정에서 시민들에게 지지 호소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아침 7시부터 도로를 지나는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출근하는 시민을 만나면 연신 허리를 숙이고 인사를 전하며, 한 표의 소

중함을 알렸다. 김윤덕 의원은 “현재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초접전 양상으로 한 표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북도의 발전을 위해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 시민 전북 도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며 “도민 모두가 이재명의 추진력과 확신을 믿고 적극적인 지지와 선거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 “완전하고 지속가능 가동 향한 척걸음”

송하진 도지사,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에 “5년 기다림 끝에 얻은 소중한 기회  
LNG·LPG 탱크 제작·의장 등으로 물량 확대 조선소기능 완전 회복에 총력”



아울러 “지역 일감 확보와 조속한 완전 가동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2023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해상운송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다. 기업 상황이 어려워지면 가동에 대해 송 지사는 “현대중공업 측에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일이 중요하다”며 “정상 가동의 전제 조건인 인력 수급과 양성에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군산시와 함께 조선소를 떠나

아만 했던 기존 인력을 다시 유치하고, 신규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 차질 없는 재가동을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

송 지사는 “군산조선소의 완전하고 지속 가능한 가동을 위해서는 지역 조선업의 체질 개선과 생태계 변화라는 장기적 전략도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요 맞춤형, 친환경, 스마트화는 조선산업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중소형 특수수요를 선점하고, 친환경,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수목적선 생산과 친환경 선박 기자재 산업을 육성해 전북 조선업의 경쟁력을 혁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산조선소의 지속 가능한 가동을 실현하고 정부의 친환경 선박 보급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면서 “꾸준한 인력 양성 정책과 함께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 여타사업 추진 등 각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 “재해위험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제 적용”

민주 안호영 의원, 대선캠프 초청 정책토론회서 이재명 후보 노동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선투쟁 선거대책위원회 노동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이재명 후보의 노동정책 홍보와 노동계 스킴십의 첨병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24일 노동건강정책포럼에서 주최한 대선캠프 초청 산재예방보상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안 의원은 24일 노동건강정책포럼에서 주최한 대선캠프 초청 산재예방보상 정책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참석해 이재명 후보의 산재예방보상 공약을 소개하고 발제를 나섰다. 안 의원은 산재 예방을 위한 독립행정기관으로서의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의무화, 전국민 산재보험 등 주요 노동안전보건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2014년 국가안전위원회 산재보험 제도개선 권고를 인용하며 “전속성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강조하며,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적 성격인 산재보험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작년 12월 국회에서 열린故김용균 노동자의 3주기 추모 전사회에서

성사된 이재명 후보와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의 만남을 소개해 이목을 끌었다. 안 의원은 산재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해달라는 김씨의 요청에 “당연하다. 제 몸에 산재의 흔적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라고 이 후보가 답한 일화를 소개하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에 대한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선후보캠프를 대상으로 한 정책 토론회로, 포럼은 공직선거법 제81조에 따라 토론회 개최 및 각 후보자 측의 승낙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불참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원주 포럼대표의 사회로 안호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강현수 건설노동자노동조합위원장,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호상 기자

# “전폭적인 지지, 대선 승리의 발판”

정읍 마을자치혁신활동가 300인, 이재명 지지 선언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 갑) 의원은 24일 오전 민주당 지지분진 정읍본부 마을자치혁신활동가 300인 이재명 지지 선언식에 참석해 “전북의 마을자치혁신활동가들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북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지지 선언에는 김윤덕 국회의원, 지지분진 정읍본부 이승호 오송동권남훈김영수 공동본부장, 임상호 정읍마을기업협의회 대표, 신상균 순천마을 노인회장 등이 참석해 마을자치혁신활동가 300인 명의로 이재명 지

지를 선언했다. 김윤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승리만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통한 발전, 전북의 대변혁을 통한 지역과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정읍 마을자치 혁신활동가들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열정이 대선 승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호상 기자

# “나를 위해, 앞으로 제대로”... 도내 곳곳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잇따라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24일 전북도의회 광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에서 연합회 대표가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임실군 청년·여성 500인의 대표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정읍지역 마을활동가와 대한노인회, 탄소중립 백안행동 정읍기후시민, 농민단체 등 4개 단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사진은 대한노인회 정읍지부와 윤준병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유호상 기자

김민영 민주당 정책위원장의 “치매전담형 요양병원 설립”



김민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병원”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등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약속했다. 김 부의장은 이재명 대선후보 “소확행” 공약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이심민심”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역 경로당을 찾아가며, “현재 65세 이상 2개까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적용인원은 65세에서 80세까지 낮추고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개 이상 차이를 가지고 있는 분은 56.8%에 불과하고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치아 수는 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부의장은 “정읍의 경우 65세에서 64세가 10,088명이고 65세 이상은 30,671명으로 60세 이상이 전체 정읍시 인구에서 무려 38.2%를 차지할 정도로 노인 인구 비중이 크다”며, “이들 노인 인구 중 독거노인의 비중과 저소득노인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주목해 노인건강 및 복지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매환자에 특화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병원 설립을 제안했다. 독거노인과 저소득노인의 증가에 맞춰 공공영역에서 치매환자 돌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 확대, 의치(틀니) 무료지원 대상자 확대, 치매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편 김 부의장은 28일 오후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저서 ‘이제 시민이 꽃필 때’ 출판기념 저자사인회를 개최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 “일자리 대전환, 전주부터 실천”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일자리 대전환 공약을 전주부터 실천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24일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만 경제 플랫폼 도시 전주 2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과 연계한 전주 일자리 성장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정책 공약에는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전주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발전협의회와 함께 오랫동안 협의해 온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만큼 전주 혁신형 일자리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조 전 경진위원장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이재명 후보의 비주도 일자리 성장 촉진 및 강력한 일자리 환류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어 전주를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는 동시에 주요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해외 창업 수출 전문기업(분글로벌 스타트업)을 키우겠다

고 약속했다. 이어, 벤처기업 유관 기관과 공동협의한 정책을 이재명 후보의 기업도시 2.0 프로젝트와 연계해 미래전략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정착하는 전주형 K-혁신밸리, 전주시 중소벤처기업 공유혁신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또 전주 일자리 대전환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전략을 수립 재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주형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공약했다. 이외에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 조성에 힘을 보태며 전북대·전주대와 연계해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해 기업이 필요한 혁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윤상 기자

# “이재명 후보 승리, 곧 민주주의 승리”

우범기 전 정부부지사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우범기 전 전북도 정부부지사가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곧 민주주의 승리”라고 강조하며, 전북포심 결집을 호소하는 ‘데도민 큰 절’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 대선승리 울림’을 선언한 우 전 부지사는 24일 오전 7시 30분 전주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향해 큰 절을 울리며,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와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우 전 부지사는 “반악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당선된다면 △검찰 독재정권의 출현, △정치 보복 자행, △무사과 무능으로 인한 비선실세 등 장이 볼 보듯 뻔하다”며 “도민 모두가

다시 한 번 민주주의를 지키는 촛불민심이 되어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이끌어 달라”고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우범기 전 부지사는 대선 D-13 일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 대선승리를 위해 매일 아침·저녁 ‘데도민 큰 절’을 이어가며, 청년과 어르신 등 취약층까지 밀착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 신임 전북선관위위원장에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을 제45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오재성 위원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 3월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22년 2월 전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남원사건관리위원회 위원장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유호상 기자